



윤석민

정교한 '칼날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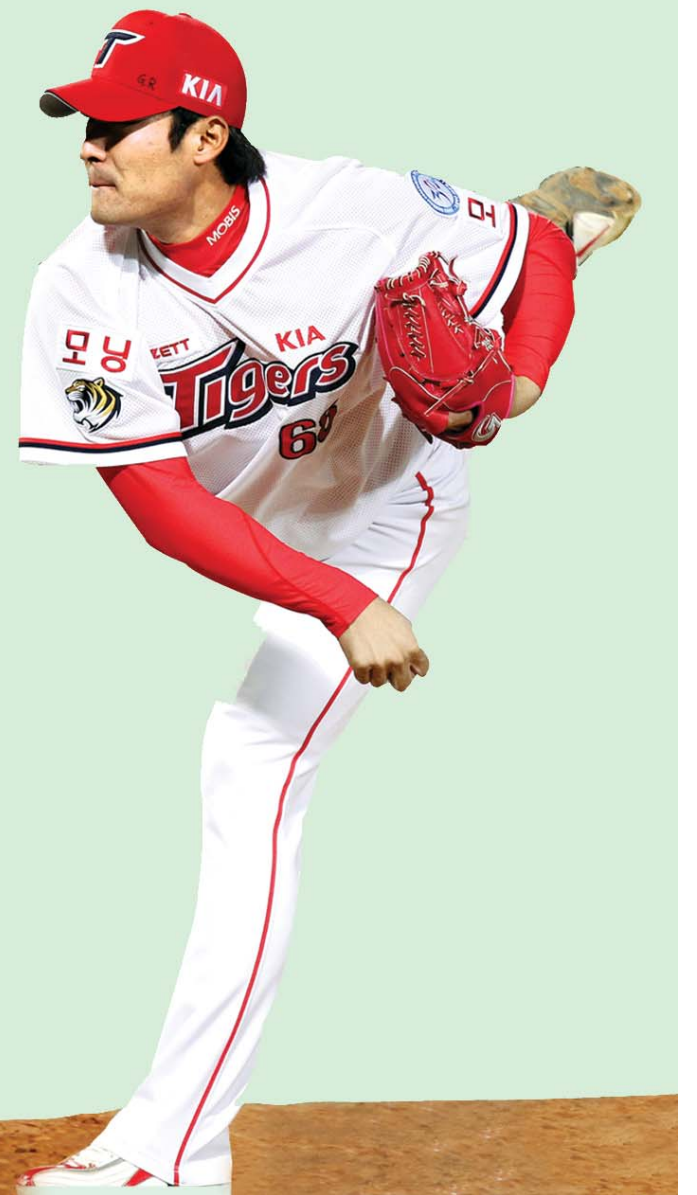
KIA 타이거즈는 '강속구 군단'으로 유명하다. KIA의 대표적인 파이어볼러 한기주를 비롯해 윤석민·곽정철·박성호 그리고 좌완 양현종, 군복무중인 임준혁·이범석의 최고구속이 150km를 넘는다. 팔꿈치 수술 후 재활 중인 신인 한승혁도 고등학교 시절 이미 150km를 넘긴 강속구파다. 이 중에서도 1986년생 동갑내기 친구 윤석민과 곽정철은 2인2색의 직구로 KIA 강속구 마운드를 대표하고 있다. 윤석민은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 포크볼 등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기교파이자 150km가 넘는 직구를 뿌려대는 파워피처이기도 하다. 윤석민의 가장 큰 무기는 직구, 올 시즌에는 155km까지 찍었다. KIA 최고의 파워피처인 곽정철은 직구와 너클볼이 주무기. 중간 계투진에서 활약하고 있는 곽정철은 지난해 157km의 공을 뿌리기도 했다. 같은 강속구를 던지지만 두 선수의 공에 붙는 수식은 다르다. 윤석민은 정교한 직구를 바탕으로 한 '칼날 직구', 곽정철은 힘

KIA 마운드 '2인 2색' 강속구 분석

곽정철

묵직한 '돌직구'

이 느껴지는 '돌직구'다. 윤석민의 직구가 날카롭게 흔들림을 타고 갔다면 곽정철의 직구는 묵직하게 미트로 빨려들어간다. 윤석민의 강속구 비결은 부드러움이 바탕이 된 탄력이다. 윤석민은 "고등학교때 공스피드가 빠르지 않아서 외야수로 전업을 했는데 140km 초·중반 정도의 공을 던졌다. 부상 때문에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지만 꾸준한 러닝으로 하체 힘을 키웠다. 또 밸런스가 중요하다. 밸런스가 맞으면 그만큼 공이 나가는 속도도 빨라진다"고 밝혔다.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절친이 꼽는 서로의 장점 역시 '정교함'과 '힘'이다. 윤석민은 "내가 파워가 부족한데 정철이는 체격도 좋고 직구에 힘이 있다. 내 직구에 곽정철의 힘까지 더해지면 좋겠다"고 웃었다. 곽정철도 "두 직구의 장점을 더한다면 최고의 공이 탄생할 것이다. 석민이가 러닝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순간적으로 뛰는 힘이 좋다. 석민이는 제구가 좋아서 직구의 위력이 배가 된다"며 "요즘 제구가 좋지 않아 변화구 승부를 많이 했다. 선발이 아니라 중간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가장 좋은 것을 던져야 하기 때문이다. 제구 잡기에 노력해 돌직구의 위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 1만5000타점

주인공은 김원섭 삼성이어 두번째

KIA 타이거즈의 외야수 김원섭이 팀 1만 5000타점을 채웠다. KIA 김원섭은 24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넥센과의 원정경기에서 3번 타자로 출전해 1회초 무사 1·2루에서 중전안타를 터뜨리며 타점을 기록했다. 김원섭의 타점으로 KIA는 역대 두 번째로 1만5000타점을 달성한 팀이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송지선 자살' 충격 두산 임태훈 2군행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지선(30) MBC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와의 교제설이 불거졌던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임태훈(23)이 1군 엔트리에서 빠졌다. 두산은 24일 LG와의 잠실구장 경기를 앞두고 "임태훈이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여서 1군 엔트리에서 말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선수의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야구 방송인의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송 아나운서는 22일 트위터를 통해 임태훈과 1년 반 정도 연인관계였다고 밝혔지만, 임태훈은 구단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이후 하루 만인 23일 오후 송 아나운서는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서초동 오피스텔 건물에서 투신자살했다. 24일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임태훈은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 관계자는 "열을 후면 1군 엔트리에 다시 등록할 수 있지만 임태훈이 워낙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 2군에 머무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30년 타이거즈 30년 (15) 고졸신화 문희수와 V4

1988년은 역사적인 하계올림픽이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던 해로 올림픽이 프로야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렸다. 또한 태평양 돌핀스가 '꽃매'의 대명사 '삼미 슈퍼스타즈'에 이은 청보 핀토스를 계속해서 리그에 참여한 해이기도 했다. 한국프로야구 7년차를 맞이한 1988시즌의 해태 타이거즈는 포스트 시즌 진출방식의 수혜를 입어 단기전에서 행운의 승리로 패권을 차지했다는 일각의 따가운 논평을 불식시키며 명실상부하게 챔피언이 되었다. 해태는 전·후기 똑같이 34승1무19패의 성적을 거두며 1위를 독점했다. 또한 방어율(2.86), 탈삼진(601), 타율(0.283), 홈런(112) 및 도루(136) 등 투·타에 걸친 대부분의 팀 성적 부문에서 압도적인 차로 1위를 차지했다. 플레이오프전은 신생팀으로 돌풍을 일으키며 전기 2위를 차지한 빙그레 이글스와 후기 2위를 차지한 전통의 강

'꽃매지'의 불꽃은 살아서 꿈틀꿈틀 거렸다

호 삼성 라이온즈와의 신구 대결로 펼쳐졌다. 1차전은 '잠수함' 한희민의 역투와 이정훈·고원부·장종훈의 활약으로 빙그레 이글스가 3-0 완봉승. 2차전은 '제구력의 마술사' 이상군의 호투로 9-3 대승. 3차전서는 '후광 섀도우' 한자 이범석까지 같은 김대중이 삼성 감탄사를 잠재우고 1실점 완투승(7-1)을 거두었다. 빙그레는 3전 전승으로 창단 3년 만에 대망의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게 되었다. 1988시즌 한국 시리즈는 저력의 해태와 패기의 빙그레가 공격야구의 진수를 보여주며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1차전에서 '호랑이 사냥꾼' 이동석이 선봉열과 치열한 투수전을 펼쳤으나 이순철의 홈런 한 방으로 해태가 2-0 완봉승을 거두었다. 2차전은 조기 구원 등판한 김정수가 1실점으로 틀어막고 '가을의 전설'을 이어가며, 6-5 한점차 짜릿한 역전승을 연출했다. 3차전에서는 '꽃매지' 문희수가 3-0 완투안봉승의 원맨쇼로 승리를 챙겼고, 해태는 한국시리즈 10연승의 대기록을 수립했다.

심각해 끝날 것 같았던 시리즈였지만 공지에 몰린 빙그레가 4차전서 이정훈·이강돈·고원부·강정길·유승안·장종훈의 '다이너마이트 타선'이 폭발하며 14-3의 대승을 거두었다. 5차전서는 이상군의 무실점 호투로 빙그레가 5-1 승리로 연승을 이어가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시리즈의 고비전이 된 6차전서는 저력의 해태가 '고졸신화'의 주인공인 문희수를 앞세워 무시무시한 빙그레의 감탄사를 단 3피안타로 틀어막고, 김준환·서정환·백인호의 활약에 힘입어 4-1 완투승을 거두며 대미를 장식했다. 현장에서 지켜본 문희수의 한국 시리즈를 향한 투구는 '불꽃이 꿈틀꿈틀 살아 움직인다는 느낌인, 예술 투구' 그 자체였다고 생생히 기억되며, 해태는 한국 시리즈 MVP 문희수의 깜짝쇼로 3연패와 V4를 달성했다.



김재요
(조선이공대 교수·한국야구기록연구회장)

'완도 탱크'는 멈추지 않는다

최경주, PGA 바이런 벨슨 챔피언십서 9승 도전

'탱크' 최경주(41·SK텔레콤)의 강행군이 이번 주에는 미국으로 무대를 옮겨 계속된다. 최경주는 26일 미 텍사스주 어빙의 포시즌스TPC(파70)에서 개막하는 PGA(미국프로골프) 투어 HP 바이런 벨슨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이로써 최경주는 우승컵을 들어올린 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과 제주도에서 지난주 열린 SK텔레콤 오픈을 포함해 3주 연속으로 대회에 나가기에 됐다. 최경주는 2007년 이 대회에서 컷 탈락한 뒤 한동안 출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경주의 최근 상승세는 4년 전의 부진을 털어낼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최경주는 지난 3월 아널드 파커 인비테이

셔널에서 공동 6위,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공동 8위, 휘티 클라식에서 공동 3위에 오른 데 이어 지난 15일 끝난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PGA 투어 홈페이지는 최경주의 최근 상승세를 반영해 우승후보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경주와 함께 '코리아 브러더스'도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다. 지난주 크라운 플라자 인비테이셔널에서 준우승한 위창수(39·테일레미드)가 출사표를 던졌고, 강성훈(24·신한금융그룹)과 김비오(21·넥슨), 재미교포 이상욱(28·타이틀리스트)·앤서니 김(26·나이키골프)도 출전한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Goller를 위한 새로운 제안①
"광주/전남 주요골프장 월3회(주중2회/주말1회)무료라운딩"
"100%보증금+보험증권 5년만기 발행"

리즈골프 주식회사 리즈골프

리즈골프(Liz Golf) Membership

리즈골프(Liz Golf) Membership 이란?

- ▶ 국내 전국 골프장 주중, 주말 부킹 서비스
- ▶ 국내 전국 골프장 주중, 주말 현지 골프장에서 바로 회원대우
 - ① 수도권 : 주중 ⇒ 회원 대우, 주말 ⇒ 주중회원 대우.
 - ② 영남권/충청권/강원권 : 주중 ⇒ 회원 대우, 주말 ⇒ 회원 대우.
 - ③ 호남권/제주도 : 주중, 주말 ⇒ 무료 라운딩.
- ▶ 보증금 전액 보험증권 5년만기 발행
제주골프투어시 제주골프클럽 年 15박 회원대우

리즈골프 호남지사 개소기념 특별혜택

- ▶ 주중 5회 무료 라운딩 추가혜택(선착순 50명)

회원 가입안내

구분	가입금액	보증금	가입기간	적용대상	이용횟수	골프서비스	지원기준	속박서비스
프라이م	3,800만원	전액 보증금	5년	기 명-1인	年 22회 (年 27회)	주중12회 / 주말10회 월3회(주중2회+주말1회) 예약 서비스	주중/주말 회원혜택	25평형대 연 15박
플레이어	6,400만원			기 명-1인 무기명-1인	年 34회 (年 39회)	주중24회 / 주말10회 월4회(주중3회+주말1회) 예약 서비스	주중/주말 회원혜택	27평형대 연 15박
이글	2,750만원	2,200만원	550만원	기 명-1인 지정인-1인	年 22회 (年 27회)	주중12회 / 주말10회 월3회(주중2회+주말1회) 예약 서비스	주중/주말 회원혜택	25평형대 연 15박
일바 트로스	3,770만원	3,000만원	770만원	기 명-1인 무기명-1인	年 30회 (年 35회)	주중20회 / 주말10회 월3회(주중2회+주말1회) 예약 서비스	주중/주말 회원혜택	27평형대 연 15박

광주/전남 법인Goller를 위한 새로운 제안②

프라이م 호남 VIP 출시

"본인+무기명회원 그린피 전액무료"
 보증금 전액 보험증권 5년만기 발행

상품명	가입금액	보증금	부킹보증 월횟수	회원자격
프라이م 호남 VIP	15,200만원	전액 보증금	주중8회+주말4회/월 (년 108회)	본인 + 무기명 3

* 그린피 면제는 전남·북 / 제주에 한함

▶ 모집인원 : 선착순 15명(2011년 5월 한)
 ▶ 계좌번호 : 100-023-066943(신한), 349437-04-000608(국민)
 예금주 : (주)리즈골프

상담문의 TEL. 062)371-1800(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310-6 골프프라자 B.D 5층